

오다 노부타다는 오다 노부나가(1534~1582)의 장남으로 노부나가로부터 기후성을 물려받아 1576년부터 1582년까지 거성으로 삼았다.

노부타다는 아버지 노부나가와 함께 수많은 주요 전투에 출전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는 스스로도 대장으로서 여러 전투에서 군을 통솔했는데, 1575년의 이와무라성 포위전에서는 강력한 적이었던 다케다 가문을 격퇴했다. 또한 시기 산성(1577)과 다카토성(1582)에서 다케다 가문을 포위했을 때 지휘를 맡기도 했다.

오다 가문과 다케다 가문 사이의 평화를 위한 협정의 일환으로 1561년, 노부타다는 다케다 신겐(1521~1573)의 딸인 마쓰히메(1561~1616)와 약혼했다. 그러나 그 평화협정도 5년 후인 1572년에 신겐의 군대가 인접한 미카와를 침략해 오다 가문의 우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공격한 것이 원인이 되어 파기되었다. 이후의 전투에서는 노부나가가 교토의 혼노지 절에 머물고 노부타다가 니조성의 부대와 함께 있을 때, 노부나가의 충신이었던 아케치 미쓰히데(1528~1582)가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혼노지 절로 쳐들어갔다. 노부나가를 쓰러뜨린 후, 아케치 미쓰히데의 군대는 니조성에 있는 아들 노부타다를 노렸다. 엄청난 수의 아케치군에 포위된 노부타다는 그 자리에서 칼로 목숨을 끊었다. 노부나가와 마찬가지로 노부타다의 머리도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